“安 계속 고집부리면 당 분열 더 커져”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광주 토론회서 통합론 성토
천정배 “소속의원 3분의 2가 반대…민심이고 당심”

“안철수 대표가 계속 고집부리면 당의 분열이 더 커져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의당 지지도도 없어질 것이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광주·전남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바른정당과 통합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한배를 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39명의 국민의당 의원 중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당심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안 대표가 호남을 다녀갔는데 민심을 잘 읽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호남은 통합반대가 압도적이며 통합할 경우 이건 개혁통합이 아니라 적폐통합이 될 것이다”며 통합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통합은 불가능한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당의 분열이 더 커져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의당 지지도도 없어질 것이다”며 “이쯤에서 통합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과 멀리하라, 호남과 멀리하라는 세력과 통합을 하겠다는 당에서 국회의원 노릇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며 “빨리 정리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은 다당제 정치구도를 만들어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걸 호남이 만들어줬는데 지금의 통합 논의는 정체성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국민의당이 집권당은 아니지만 범민주 세력의 일원으로 국회 캐스팅보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미래는 이같은 개혁에 대한 기여도로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민의당은 집권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의 영상 인사 상영, 패널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평화개혁연대는 다음 주 전북에서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이 이끄는 지방자치시대 열겠다”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내년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이끄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광주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인들은 당선만 되면 시민의 아픔을 외면했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며 “기득권 정치인이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30년간 광주·전남 곳곳에서 시·도민의 애환을 함께 한 공직 경험과 지난 6년간 정치 경험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며 “이력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현장중심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현장중심 자치행정 전문가와 지역 기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민생을 먼저 챙기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장,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9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광주시장 후보군 중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책임지겠다”

양향자 민주 최고위원 “광주시장 선거 출마”

양향자(5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는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내년 선거에서도 역사를 바꿀 것”이라며 여성시장 후보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산업 등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더 늦기 전에 기아차와 금호타이어에 머물러 있는 광주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내가 가진 경쟁력으로 다른 후보들과 겨뤄서 광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또 “내년 1월말 출판기념회와 출정식을 하고 광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내놓겠다”며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지역위원장직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의 싱크탱크인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는 오는 1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상을 졸업한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상무까지 승진한 뒤 민주당에 영입돼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동찬 “시교육청 위원회 운영 부실 투성이”

광주시교육청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13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84개 중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22.6%인 19개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나머지 위원회 절반 이상도 개최 횟수가 1-2회 미만이어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이 안돼 미집행 예산도 56.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교육청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0회 19개, 1-2회 37개, 3회 이상 28개다.

특히 그는 “광주 교육발전의 중·장기 밑그림을 그려야 할 ‘시교육청 교육과정 정상화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행정 편의적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도의회,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야간운항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영덕 의원은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은 서남권 거점공항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야간운항 제한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무안공항 관제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관제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오후 9시-이튿날 오전 7시 무안공항 야간운항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야간운항이 제한되면 국제 부정기선 유치가 어려워져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행정안전부 안에 따르면 전남 광역의원은 현재 52명(비례 제외)에서 46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촌을 죽이고 도시 집중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민주당, 광주·전남 선출직공직자 평가 종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13일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완료했다.

광주시당은 황인창(전 조선대 대학원장) 위원장이, 전남도당은 조만형(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며 지난 11월 1일부터 40여일 넘게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광주는 구청장 3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29명 등 총 44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고, 전남은 시장·군수 14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6명 등 총 189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시·도당은 공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위원 상호간의 평가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했다. 평가 결과는 밀봉해 보관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GTMBA 제 8기 원우 모집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세계속의 글로벌 리더, 오직 과학기술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미래를 선도할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8기 원우모집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GTMBA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CEO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최고의 지성 기관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GIST 교수진으로부터는 최신 기술 동향 강의를, 해외 주요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국제화 감각을 함양하는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모실 여러분들의 성공 레이스에 든든한 조력자 역학을 하고자 합니다.

GTMBA는?
최신 기술동향과 글로벌 경영 이론이 어우러진 최고의 강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 GIST 산학연 기술협력 및 기술자문 지원

모집인원 : 40명 내외
교육기간 : 2018. 3. 13.(화)~2018. 11. 6.(화),
교육기간 중 2/3이상 출석하여야 수료 가능
강의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01호
수 강 료 : 500만원(해외연수비 별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3-600-003156 광주과학기술원
모집기간 : 2017. 12. 1(금) ~ 2018. 2. 7(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문의 : GTMBA 사무국
T)062-715-2622~3
E) gtmba@gist.ac.kr
H) http://gtmba.aist.ac.kr